

트래블



하동 차밭

茶 자연을 담다

차향기 따라 가본 하동



하동의 서쪽 끝 화개장터는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예로부터 오가는 나그네로 하여 언제나 흥성거렸다. 특히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이 산나물을 들고 내려오고, 전라도 황활물 장수들이 구례길을 넘어오며, 섬진강 하류 해물장수들이 하동길을 통해 모여들었다.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입세에 따른 말이다. 그러나 5일장이 사라진 오늘날 이곳엔 장돌뱅이 대신 매년 봄마다 벚꽃과 산수유를 찾아 동서의 상춘객들이 모여든다. 그리고 '봄비가 백곡을 윤곽하게 한다'는 곡우(穀雨)를 즈음해 꽃이 떨어지고 나면 꽃내음 대신 진한 차(茶)향으로 다시금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산비탈 곳곳 야생 차밭... 문화센터서 차 체험도

라가는 화개동천 인근 1천년된 고차수위로 만든 녹차는 한 통에 1천만원이 훌쩍 넘는 정도다. 그리고 보면 화개, 약양면 등 하동 일대는 전체의 차 재배지다. 3면이 지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1천m가 넘는 고봉이 많아 차를 생산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 그럼에도 보성에 비해 하동의 차밭이 덜 알려진 이유는 뭘까? 그것은 두 차밭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하동의 차는 보성의 것과 다르다. 보성이 대규모로 조성된 재배 차밭이라면, 하동은 산비탈에서 저절로 번식해 이뤄진 야생녹차이다. 그래서일까? 차밭의 전경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또한 다르다. 탁트인 보성의 차밭은 이국적이다. 일정한 나무줄기가 끊없는 곡선을 이루며 통일된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울창할망 산비탈마다 흩어져 흐드러진 하동의

차밭은 어느 발레기랑 별반 다를바 없이 우리네 농촌 풍경 속의 한부처처럼 느껴진다. 시원함은 없지만 대자연과의 조화가 있다. 5월 하동의 차밭은 분주하다. 봄에 따는 첫잎은 시기와 크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의 이름이 붙여지는데, 6월 초순까지 그 채취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곳을 찾으면 산기슭마다 첫잎을 따는 시골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때마침 오는 25일까지 시베지 일대에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펼쳐진다니, 때를 맞춰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화개동천 계곡 주변으로 차밭만큼이나 수제차를 파는 점포다들 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직접 차밭을 일구어 가꾼 차나무에서 잎을 채취해 차를 만든다. 어느 다실이면 문을 열고 들어 가 차 한 잔을 요구해도 괜찮다. 차를 마시고 글이

구입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갖 만들어 낸 차의 향기에 마음을 다잡기란 그 또한 쉽지 않다. 운이 좋으면 인근 농가에서 따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움이란 차의 독성을 제거하고 건조시키기 위해 찻잎을 솥에 넣고 볶는 과정으로, 섭씨 300~350도의 무쇠 솥에 찻잎을 2~3kg씩 넣어 뒤는다. 이후 고무 잘 뒤은 찻잎을 손으로 비벼 상처를 내는데 이를 통해 차는 더욱 진한 향을 얻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인근 하동차문화센터(055-880-2838)에 들러보자. 센터 뒤쪽 차밭에서 직접 찻잎을 따 뒤움체험을 할 수 있다. 단 참가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며, 30명당 10만원 상당의 참가비가 필요하다. 30명 이상 단체손님이 많을 것 같지만 5월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이미 예약이 끝나 있다고 한다. 문의,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5-880-2376. /글=부산일보 김중열 기자 bell10@busanilbo.com /사진=이재현 기자 chan@busanilbo.com

덤으로 가볼만한 곳



소설 '토지'의 최참판택, 최참판택에서 바라본 약양들판, 상설화된 화개장터(사진 왼쪽부터)



하동 가는 길 광주에서 남입·구례쪽 국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순천을 경유 하동 IC를 통과해 국도 19호선을 탄다. 바로 유홍준 교수가 그의 저서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았던 바로 그 19번 국도다. 왼쪽으로 섬진강을 끼고 19번 국도를 따라 30분 가량 달리면 평



사리 삼거리가 나온다. 그곳에서 우회전 하면 바로 드라마 '토지' 촬영 세트였던 최참판택, 평사리삼거리를 지나 400m가량 차를 몰면서 산길로 우회전 하면 형제봉에 올라 약양 들판을 조망할 수 있다. 화개장터로 바로 가고 싶다면 이를 다 건너뛰고 19번 국도를 타고 왼쪽으로 남도대교가 보일때까지 10여분을 더 달리자. 남도대교가 보이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화개장터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89
(010-8004-6669)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 1,300평) 평당 70만원
최저 도로전 완전자산으로 거의평지/평당 2만5천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7)972-4385
(011-804-8205)
★급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들쭉잡고, 복지실버시설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 3층 8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 2007년 11월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취권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전용/상가주택/오피스텔
▶상가건물/모텔
▶주택
▶토지/공장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원)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주택
▶아파트
▶근린시설/근린상가 상점
▶근린주택/다세대/빌라/전용 상점
▶토지
▶공장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림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건물
●6의 사할금매
●7의 5천 교시원 급매
●공공 급매
●부동산 전문중개
●13의 병원 약품 건물 급매